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7일 목요일 음 8월 7일 (14물)

기상정보

22-27℃

파고 1.0-3.5m

파고 1.5-3.5m

파고 1.5-3.5m

파고 1.5-3.5m

22-28℃

호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 낮 최고기온은 27-28℃로 예상된다. 아침에 곳에 따라 빗방울, 오전부터 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 중심 가끔 비가 오겠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18
해짐 18:38

달뜨기 12:16
달짐 21:59

물때
만조 01:08
15:01

간조 08:09
21:15

자외선지수
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30%

60% 성 산 60%

20% 고 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22/27℃

모레 ☀️ 맑음 23/28℃

월드뉴스

치솟는 유가, 세계 곳곳 분노 시위 확산

도로봉쇄 파업·행진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분노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에 따르면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높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시민들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에선 14일 연료 부족에 따른 휘발유 배급 제 도입에 반대해 택시 기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자바에선 학생들이 급등하는 연료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다. 공격적인 친정부 단체들에 의해 해산당했다.

베트남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리아 시민들.

기사들이 유튜브 상성에 따른 낮은 임금에 항의해 운행 거부해 나섰고, 필리핀 대중교통 운송단체 마니벨라 소속 근로자들도 정부 보조금과 유류세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 단체 등 시위대가 유가상승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수도 과테말라시에서도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평화 행진이 이어졌다.

목요담론



김완봉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그 출발점은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제주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 삶의 철학을 길러 주었고, 섬을 지키기 위한 저항과 연대의 정신, 바다를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방성과 도전 정신을 키워 주었다.

최근 제주학 연구자들이 잇따라 저술과 수상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있어서 화제가 되

오래된 삶, 미래 유산으로 활짝 피다

고 있다. 하나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재연구소 안미정 교수의 ‘국가문화유산 해녀’ (국가유산청, 2025년)로, ‘2026년 대한민국의 유수학술도서’에 뽑혔다. 책의 내용은 해녀의 정의와 범위, 해녀의 유래와 어로 문화의 전승, 제주 잡녀의 전국적 확산, 해녀 물질의 전통과 관습, 해녀 문화의 전승과 다양성, 향후 과제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으로 해녀 문화를 전국 해녀들의 전승 양상을 지역별로 정리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안 교수의 저작물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수상한 것이어서 가치가 크며, 앞서 안 교수는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24)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제주역사문화나눔연

구소 김일우 소장의 저서 ‘오늘의 제주, 역사로 묻고 답하다’ (경인문화사, 2025년)로, ‘202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철학·사회과학·자연과학·역사 등 9개 영역에서 제주와 관련한 도서는 김소장의 단행본이 유일하다. 특히 이 책은 2025년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됐기에 의미가 크다. 선정 저서는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다른 이름 탐라, 굴의 고장, 말의 고장, 제주의 여성 등 4부로 짜여 있다. 그는 제주의 역사·문화와 오늘의 제주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해함으로써, 역사 서술의 대중화는 물론 국가 전체사의 보완 혹은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헬릿 카(E. H. Carr, 1892~1982)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이 어떤 역사가를 만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징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기록과 기억을 공문화 없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 하며, 지역의 정체성은 오래된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진화한다. 역사는 누구와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탐라와 제주의 역사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편적 미래 유산으로 꽃피우기까지, 고군분투하는 제주학 연구자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열린마당

추석 연휴 해외여행, 예방수칙이 안전 지킨다 여행의 품격은 배려와 안전



신재귀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국가 간 이동과 교류도 증가하는 만큼 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상황 확인과 예방수칙 숙지가 중요하다.

국립제주검역소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제주공항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입국과정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필요시 공항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등 맹기열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긴 옷 착용 등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귀국 시 발열 등 맹기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맹기열 신속키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와 해외여행 수요가 맞물리는 시기다.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유행하고 있어 방문 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전에는 방문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예방수칙을 실천하며,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해외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상담은 1339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상태질문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필요시 공항



강지운
제주시 교통행정과

10여 년만에 다시 찾은 우도는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과거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지던 소박한 풍경 그 자리에, 감각적인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이 들어서며 여행의 다채로움과 풍성함을 더해준다. 하지만 생기 넘치는 풍경의 이면에서 문득문득 아쉬움과 걱정이 스쳤다.

요즘 우도 여행의 필수품인 전동카트는 편리함을 주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실제로 대여 계약을 살펴보면 자가 차량 손해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았다. 운행 중 사고나 파손 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거나 하루 5만원의 휴차비, 자기부담금 조항 등이 이용자 뒤편에 명시돼 있었다.

도로 위 풍경도 돌아보게 된다. 아슬아슬하게 전동카트를 추월하거나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모습, 또 낮은 풍경에 이끌려 갑자기 도로 한복판을 건너는 외국인 보행자들의 모습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도사리는 길 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속도를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어운전이 절실하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우도를 찾을 것이다. 이제는 대여행객의 정직한 정보 안내와 철저한 차량 점검, 그리고 자율적인 성숙한 질서 의식이 맞물려야 할 때이다. 이번 추석에는 낭만 속의 우도에서 무방비한 위험이나 불필요한 분쟁 대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안전’이라는 선물로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1988

www.cheilsa.co.kr

제일사 양복점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모델비례 체형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신한은행

← 삼성혈 칼호텔

전농로 →

1 중앙로

NAVER

제일사

검색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

와 함께 하십시오.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광양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